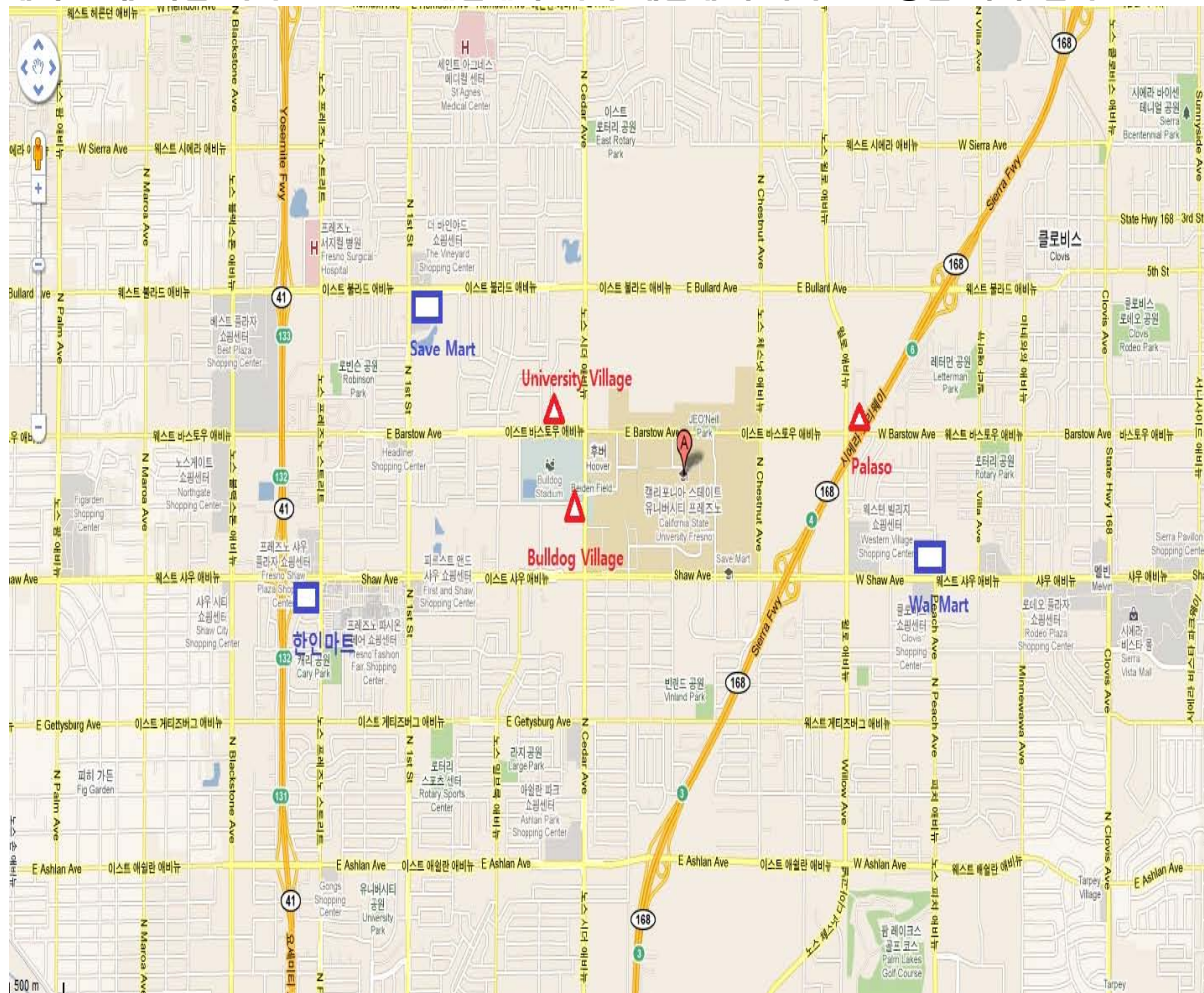


수학보고서 CSU Fresno <Shopping>

오병민
obm87@nate.com

프레즈노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학교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기숙사에 살게 된다면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갈 일이 별로 없지만 학교 밖에서 살게 되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을 봐야 한다.



지역의 약도이다

빨간 삼각형은 학생들이 주로 살게 되는 University Village, Bulldog Village, Palaso이고 파란 사각형은 주로 쇼핑하는 곳들이다.

University Village에서 가까운 Save mart는 Wall mart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가격은 Wall mart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규모가 작은 만큼 살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있다. 학교 정문에서 9번 버스를 타면 5분 거리에 있는 Wall mart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한국의 어느 대형 할인 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시아 식품코너가 있긴 하지만 한국 식품은 없다. 차가 없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어 2주에 한 번 꼴로 장을 보는데 한 번에 약 \$60 ~ \$100 정도 든다. 나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택시를 불러 타고 오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택시비 약 \$15). 자전거를 타면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보다 자주, 조금씩 장을 봐서 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월마트 외부와 내부의 모습

Shaw Avenue와 Fresno Street가 만나는 곳에 한인 마트가 있다. 김치, 쌀은 물론 라면, 고추장, 된장 등 여러 가지 한국 식품과 밥솥, 수저 등의 생활용품들을 구할 수 있다.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며 옆에는 한국 식당도 있다. 자전거를 타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9번, 28번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인 마트 근처에는 Fashion Fair가 있는데 두 개의 백화점과 유명 의류 매장들이 있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 볼만 한 곳이다. 또한 주변에 은행들이 많고 핸드폰 매장도 있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전공서적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새 책을 기준으로 하여 한 권에 약 \$100 ~ \$200] 따라서 책값이 부담된다면 중고 책을 사거나 빌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점의 중고 책 재고가 없어 새 책을 사게 되더라도 서점보다 Amazon 같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편이 더 싸다. www.chegg.com에서는 학기가 시작할 때 책을 빌려주고 학기가 끝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의 유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Kennel Bookstore의 모습

사진의 Kennel Bookstore는 Student Union 옆에 있는 건물로 지하,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책은 물론 CSUF의 로고가 새겨진 옷, 가방 따위의 여러 가지 기념품들과 학용품, 간단한 식품도 살 수 있다.

CSUF의 기념품은 Cedar Avenue와 Barstow Avenue가 만나는 곳에 있는 볼록 샵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휴대전화 또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Cricket인데 한 달에 \$35 의 가격으로 통화와 문자메세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달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면 4달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T-Mobile이 있다. 요금은 Cricket의 절반 수준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에 제한이 있다. Cricket 매장은 Fashion fair 맞은편에 있고 월마트에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